

- 아래로부터 총파업!
-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 노동악법 철폐!
- 노동해방 쟁취!

총파업 승리와 노동해방으로 전진하는 노동자 투쟁단

이메일 : strike2012@jinbo.net || 카페 : cafe.daum.net/strike2012 || 페이스북 : strike2012fb@gmail.com || 연락처 : 010 - 9585 - 4569

한 번 제대로 붙으면 들불이 된다! 총파업의 불꽃을 조직하자!

세계대공황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면서 한국자본가들의 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3'의 수주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반토막난 조선산업을 비롯해 모든 산업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시한폭탄 중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100조에 이른다. 당장 몇 달 앞을 예측하기 힘든 정도로 경제위기는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한 이윤창출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 세계시장을 집어삼키기 위한 자본가들끼리의 전쟁! 이것이 모든 나라 자본가들이 똑같이 가는 길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요구조차도 쉽게 들어줄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노골적인 폭력으로 답한다.

한국의 자본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도 2013년 최저임금을 4860원에 묶어 두었다. 또한 수많은 곳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항을 이용해 민주노조를 짓밟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민영화를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총반격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화물·건설 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염원이었던 표준운임제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지 못하고 5일 만에 운송료 9.9% 인상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파업 초반에는 수많은 비조합원이 동참하고 동조하면서 물류를 마비시켜나갔고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한창때 비해서는 많이 모자랐지만 그동안 무너졌던 조직력을 생각하면 의외의 기세였다. 그만큼 가난한 노동자들의 가슴 밑바닥에 분노가 커져이 쌓여있었다.

또한 다단계 착취 구조에서 등골을 빼앗기는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알려지면서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공감을 얻었다. 생활임금 쟁취를 의미하는 표준운임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는 바로 수백만 노동자들의 중대한 관심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비록 파업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고 투쟁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계획과 지도력이 턱없이 부족해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밀렸지만, 미조직 노동자(비조합원)의 힘을 끌어낼수록 파업은 활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건설 파업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덤프, 레미콘, 타워크레인 뿐만 아니라 펌프카, 굴삭기 등 다양한 업종 부문이 많이 조직되면서 파업의 힘이 훨씬 강해졌다. 대규건설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비조합원을 조직해 삼사백의 파업대오를 칠백 넘게까지 확대해갔고 파업기간 동안 투쟁사업장에 연대하며 단결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번 화물·건설 파업의 추동력은 지도부의 계획이나 일정이 아니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밑바닥 노동자의 힘이었다. 조직된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면 파업의 물결은 거침없이 확산된다. 여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저력을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력이 결합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투쟁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개별사업장 투쟁을 넘어

노동자계급 총단결·총파업에서 승리의 전망을!

경제파탄, 물가폭등, 휴·폐업, 대규모 구조조정 시기에 개별적 경제투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처지를 방어할 수도 없다. 빗자루로 태풍을 막을 수는 없다. 경제가 파



▲ 총파업투쟁 승리를 연호하는 노동자들. 총파업, 노동자의 염원이다! 2012년, 총파업 투쟁 반드시 성사시켜 세상을 바꾸자!

탄나는데 자기사업장 임금과 고용을 얼마나 지킬 수 있겠는가? 또한 위기가 심화될수록 자본가들은 법, 언론, 경찰, 검찰 등 체제 전체의 힘을 동원하여 사생결단으로 나오는데 개별사업장 힘만으로는 승리의 전망을 열기가 대단히 어렵다. 노동자계급 총단결·총파업으로 일어서야 한다. 정부를 향한 정치투쟁으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요구들을 쟁취해야 한다.

이제 금속파업 전선이 열리고 있다. 올해는 야간노동 철폐를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다. 야간노동 철폐는 완성차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부품사와 열악한 사업장 노동자들의 염원이다. 이미 작년 유성기업 투쟁으로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고, 올해 기아차 시범실시로 주간연속2교대의 실제 효과도 거듭 확인되었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도 더 넓게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고용 계약직 전환과 강제 전환 배치에 맞서 집단 가입과 파업투쟁을 조직해 나가고 있다. 21~22일 백만인이 지지하는 울산공장 포위의 날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야간노동 철폐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해 완성차와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로 모여 제대로 싸워나간다면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것이고 연대는 폭발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갈 때다. 이명박 정부는 연이은 측근 비리와 레임덕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 번 불이 제대로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고 들불로 번져나갈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분노와 고통이 쌓여가고 있다.

선진노동자들과 평조합원이 직접 나서자! 그동안 뺑파업만 만들어왔던 관료들, 자본가 정당들과 손을 잡는 출세꾼들이 무슨 진짜 총파업을 조직하겠는가? 금속파업이든, 8월말(28, 29, 30, 31일) 민주노총 총파업이든 진짜 총파업은 지도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결단하고 단결해야 가능하다. 각각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사업장, 지역, 업종을 뛰어넘는 계급적 연대투쟁을 만들어내자! 진짜배기 총파업을 조직하자! 노동자계급의 힘을 모두 끌어모아 자본주의 이윤경쟁체제를 넘어 노동해방 공동체 세상으로 전진하자!

2012년, 올해는 반드시 주간2교대 쟁취해야 한다! 온전한 주간2교대를 위해 총파업이 필수다!

노동자의 염원, 야간노동 철폐!

야간노동, 장시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곳인 병원처럼 24시간 노동자들이 있어야 하는 곳도 아닌데 자동차 공장에서 밤새 생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십 년간 야간노동, 장시간노동에 시달려온 수많은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회사가 주간노동만으로도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면, 몸을 해쳐가며 야간노동을 할 노동자가 어디 있겠는가? 시범실시를 경험한 기아차 노동자들은, 부족한 것이 많은 주간2교대였지만 심야노동 철폐의 효과를 실제로 확인했다. 야간 노동을 안 하니 몸이 덜 피곤하고, 그래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여가시간이 늘어나서 좋다며 주간2교대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산업과 사업장에서 야간노동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온전한 주간2교대 쟁취, 총파업 없이 가능한가?

주간2교대가 올해 완성차 투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간2교대가 결정,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간2교대라고 다 같은 주간2교대가 아니다.



우리는 왜 주간2교대를 요구했는가? "밤에는 잠 좀 자자", "고된 노동으로 부서지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내자"는 이유 아니었는가? 그런데 회사는 수년간 끌어오던 주간2교대를 원칙대로 시행하려하기는커녕, 물량 운운하며 징징대고 있다. 심지어 기아차는 주야맞교대로 연간 124만대 생산하던 걸 주간2교대하면서 139만대 뽑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아니, 10+10에 생산하던 걸 8+8 동안에 다 생산하라니, 노동자더러 일에 깔려 죽으라는 말인가? 노동자의 몸이 부서지든 말든 물량만 뽑아내면 상관없단 말인가?

자본은 노동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간2교대를 대비하며 슬금슬금 UPH를 올리고 있다. 이미 교섭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총파업 없이 온전한 주간2교대 쟁취는 불가능하다.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고용 불안 없는 주간2교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총파업이 필수적이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임금 몇 푼 깎이는 것을 두려워 말고 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게 진짜 자신과 가족을 위하는 길이다.

모든 노동자 하나 되는 주간2교대 쟁취 투쟁을 만들자!

게다가 야간노동 철폐와 주간2교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전체 노동자의 염원이 담긴 계급적 요구다. '귀족 노동자'라고 욕먹던 완성차 노동자들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며 당당히 투쟁할 수 있는 요구다. 어디 그뿐인가?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설비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라는, 기존에 고용된 비정규직 우선 정규직화하고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하라는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요구를 함께 하면, 사회적 지지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을 모두가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부품사의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미조직 노동자들이 열렬히 호응할 것이다.

2012년 올해는 반드시 주간2교대 쟁취하자! 자신감 갖고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고용 불안 없는 주간2교대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 단결하여, 주간2교대, 야간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드시 쟁취하자!

쌍용차/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쌍용차 동지들과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7/9~7/14 'NO! 정리해고, NO! 비정규직, NO! 국가폭력, 공동순회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자본과 국가에 맞선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함께하자고, 총파업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다.

쌍용차 동지들과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각각 77일, 25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에 맞서 투쟁했다. 그러나 우리는 동지들의 피땀한 투쟁에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화답하지 못했다. 그 결과 동지들은 아직까지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쌍용차에서는 2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동지들의 투쟁에 충분히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가 비단 쌍용차 동지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1년 폐업과 정리해고로 실직한 노동자만 30만 명에 이르고, 기타 비자발적 이유를 모두 합치면 해고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비정규직은 나날이 증가해 이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지금도 풍산마이크로텍, 시그네틱스,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콜트콜텍, K2코리아 등 수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고, 재능교육, 각지의 청소/시설 노동자들,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비정규직은 언제 자신의 문제가 될지 모른다.

게다가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는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

니다.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은 자본가 국가의 군함발에 짓밟혔고, 자본가 정당들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정몽구를 도와 더 많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도 사생결단의 투쟁을 각오하자. 동지들의 투쟁을 외면하지 말고 엄호, 사수하여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자. 올해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 정리해고/비정규직 기필코 철폐해내자.

쌍용차 동지들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개월째 대한문과 평택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다시 한 번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결코 동지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연대의 전선에 나서야 한다.

7/21(토) 일정에 함께 하자!

7월 21일(토)에는 <쌍용차 투쟁 결의대회>(16시 평택역, 19시 쌍용차 평택공장)과 <비정규직 철폐!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14시 현대차 울산공장, 1박 2일 일정)이 함께 진행된다. 모든 노동자는 이 자리에 모여 동지들과 함께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결의하자! 노조의 지침과 무관하게 함께 해야 할 중요한 투쟁이다! 전국의 모든 동지들, 21일에 뫼길 바란다. 투쟁!